

아동과 청소년의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ren's Shame and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on Peer Pressure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한 세 영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ae-Young Ha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action and effects of sham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peer pressu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9 children and early adolescents from 5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2nd grade in middle school (187 boys, and 172 girls) in Daejeon cit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gender and age played a significant role on the effects of sham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peer pressure.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boys' peer pressure, whereas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boys' peer pressure. The interaction effects of shame and open-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mothers worked differently on peer pressure across gender and age. Interaction effects of shame and open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mothers were significant for boys, but not for girls. Interaction effect of shame and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s was significan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주제어(Key Words) : 또래압력(peer pressure), 수치심(shame), 부모자녀간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I. 서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화되어간다.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면 또래관계가 사회적 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거나 자율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이며, 그로 인해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상호작용의 패턴에 변화를 겪기도 하면서 또래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또래관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또래압력은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래관계 현상 중의 하나로, 또래들로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함께 하도록 강요받는 인식이나 느낌(Barkin, Smith, & Durant, 2002)을 말하며, 또래집단이 요구하는 바나 가치규범에 동조하게 하는 내부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또래동조성향이 있으며 집단동조압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청소년의 생활에서 또래관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Atwater, 1996)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고, 또래의 의견이나 행동에 일치하려는 성향을 가지므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또래압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또래집단이 제시하는 가치규범에 동조하여 행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압력을 “또래로부터 특정 가치규범을 강요받았다고 느끼며 그에 일치하려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따라서 또래압력에 동조하거나 또래압력에 취약하다는 것은 또래로부터 강요받는 가치규범대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또래집단의 가치규범이 바람직할 경우 또래압력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이루고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비행행동을 가지있게 여기는 집단의 또래압력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한상철, 1998). 이러한 또래압력에 대한 동조성향은 반사회적 상황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며 실제행동과도 상관성이 나타난 바 있다(김재은,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는 폭력을 주도한 사람보다 또래의 압력에 의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더 잔인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밝혀(한상철, 2001) 또래압력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연구에서는 또래압력을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으로 설명하거나 주요원인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류나미, 윤희미, 2006), 흡연(박순길, 조종열, 박영호, 2003; Barkin *et al.*, 2002), 약물(Best,

Thomson, Santi, Smith, & Brown, 1988), 비행(Santor, Messervey, & Kusumakar, 2000), 또래괴롭힘(김연화, 2009; 유귀순, 2001)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어져 왔으며, 심지어 또래압력으로 인해 창의성이 감소한다(유연옥, 2003)는 인지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보고되어 왔다.

또래압력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학업에 관련된 연구로, 또래압력이 수업현장에서 또래협력에 기여하고, 학업과 관련된 과업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이다(Atkinson, 2009; Casella, 1989). 이 두 연구의 대상은 미국학교 학생들로, 그룹과제 및 그룹활동이 많은 서양 학교문화의 배경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거나 성취하는 것 보다는 또래의 권유나 무언의 약속이 작용하는 교실분위기에서 집단학습활동이 더 활발했음을 보고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학업 또는 학습과 관련하여 또래압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아직 드문 실정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할지라도 또래의 기대나 권유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교실은 교사의 통제가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또래의 영향으로 학습활동에 대한 동기를 얻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또래압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주요과업인 학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혀 또래압력의 긍정적 역할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이 또래압력의 결과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비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또래압력에 동조하게 만드는 심리적, 관계적 동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래압력의 심리적 원인을 밝힌 소수의 연구(이상국, 2006; 이상미, 2008)는 대부분 자아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룬 변수와 또래압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중요성이나 가치 등을 믿는 정도를 말한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과 또래압력과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데 비해 수치심과 또래압력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치심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표상이며 자아에 대해 무가치하다거나 무력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거부적인 반응이나 부끄러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욕구 등을 불러일으킨다(Menesini, *et al.*, 2003). 또래압력은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없이 또래집단에 동조하는 특성이므로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수치심과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연속선상에서 반대의 극단점에 대치하고 있는 변수들은 아니지만, 수치심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치심이라는 심리적 변인은 또래압력의 이러한 특

성과도 관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수치심이 강할 경우 자신의 판단이나 능력보다는 타인의 승인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커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압력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로부터 수치심과의 관계 또한 유추해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또래압력을 크게 느끼며(이상국, 2006),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우 또래친구의 가해행동에 대한 동조가 낮게 나타나고 방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이상미, 2008).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또래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 개발연구도 이루어졌다(이상국, 2006). 따라서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이 외부의 승인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고 집단의 규범에 동조적이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압력을 낮게 지각하며, 수치심이 높을수록 또래압력을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상관은 남아와 여아간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다(김연화,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래압력 지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암시하며, 이는 수치심이 또래압력의 예측요인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외국연구에서는 또래관계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지적하면서(Lashbrook, 2000), 수치심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Scheff(1990)은 수치심이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라고 강조하였고, Lashbrook(200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또래압력의 정서적 요인을 탐색하던 중 수치심과 관련된 정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Rossiter(1994)는 아동후기에 해당하는 10-12세의 여아들의 수치심의 작용을 보고하였고, Rabow와 Duncan-Schill(1995)는 또래의 음주행동에 동조할 때 수치심 관련정서가 있음을 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발견들을 통해 Lashbrook(2000)은 또래압력에 인지적, 행동주의적 수준으로 접근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수치심과 또래압력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래압력이라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변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청소년기에 또래관계의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는 자아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변화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는 독립의 욕구와 함께 부모와의 상호작용 패턴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 직접적인 매개역할을 한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또래압력간의 직접상관을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또래압력의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은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독 등의 부모역할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부모를 적대적,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많이 하여(박정은, 2002) 부모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청소년이 또래압력에 취약할 것임을 암시하였다. 또 한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이 높고 거부적 양육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지지가 낮을수록 또래압력을 적게 지각하였으나, 그 상관은 여아에게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해(김연화, 2009), 남녀아동이 부모 각각과 어떠한 패턴의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또래압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부모의 감독과 훈육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Curtner-Smith & MacKinnon-Lewis, 1994) 아버지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부적절한 훈육을 할 경우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또래압력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싱가포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im(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과 부모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또래압력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 외 가족구조와 또래압력 지각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서는(Sternberg, 1987) 가족구조에 따라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이나 계부모가정의 청소년이 또래압력에 취약하다고 하였고, 이는 부모가 청소년을 더 잘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존재자체보다는 청소년이 또래관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으며, 이를 통해 또래압력에 있어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또래압력 간의 직접적인 상관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또래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낮았으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일수록 또래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높아졌다(유현정, 2004). 가족관계와 또래압력간의 상관을 찾아낸 이연미(2009)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유대관계와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때 또래압력에 동조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을 감소시키는 부적상관을 제시하였다. 반면, 아동이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와 친밀감과 우의가 높으며, 부모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와 대립관계가 증가한다는 연구(김연화, 2005)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자율성(emotional autonomy)이 또래압력을 거부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Bamaca & Umana-Taylor, 2006)도 있다. 친구들과의 대립관계가 또래압력을 거부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자율성이 부모와의 폐쇄적 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적

어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반드시 또래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부모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단순한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을 보이는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또래압력에서의 성차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보고된 결과를 살펴보면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높거나(윤두연, 2005) 또래동조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김재은, 2007)고 보고한 연구가 있는 반면,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구(유현정, 2004)도 있다. 성별에 따라 또래압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연구도 있었다(권상인, 2006). 이렇듯 성에 따른 또래압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해당되는 4, 7, 10학년 미국과 일본 아동을 조사한 Killen, Crystal과 Watanabe(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외된 아동이 친구들에게 수용되기 위해 굳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또래압력에 대해 유연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과 연령에 따라 또래압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게 해주며, 서로 다른 양상의 또래압력의 원인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 탐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의 아동들은 바람직한 영양공급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여, 초등학교 고학년인 5, 6학년은 아동후기의 특성과 청소년 초기의 특징을 공유하는 과도기적인 발달단계의 특징을 보이곤 한다. 연구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초기 청소년으로 간주하기도 하나 학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아직까지 아동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연구동향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특징을 일부 나타내고 있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 초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을 포함하여 그들의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대해서는 각각 얼마나 취약한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초기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는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나아가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하여 또래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교사들이 초기 청소년이 또래압력에 취약한 원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의식 함양과 부모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또래관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보탬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성과 학년에 따라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압력은 관계가 있는가?
- 2) 성과 학년에 따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또래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대전광역시 1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과 중학교 1, 2학년의 초기 청소년(남아 187명, 여아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하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청소년은 중 1, 2학년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19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8.04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사가 91명(27.5%)이었고, 대졸 이상이 240명(72.5%)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사가 134명(40.4%), 대졸 이상이 198명(59.6%)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 외 아동학 전공자 1인이 함께 내용타당도를 검증했고, 세 변수를 측정하는 세가지 척도가 모두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1) 또래압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nders가 제작한 TTQ(Tough Turf peer pressure quiz)를 기초로 하여 김주연(1996)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 또는 결정한 것이 잘못되어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봐 겁이 난다” 등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4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한 SSGS(State

Shame and Guilt Scale) 척도(Tangney & Dearing, 2002)를 한세영(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나는 내가 가치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낀다.” 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1인이 검증한 바로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를 의미하는 내용을 타당하게 포함하였다고 판단되었다. 원칙도인 SSGS의 수치심 영역의 신뢰도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김연화(2005)가 아동에게 맞는 용어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개방성 정도 10문항과 폐쇄성 정도 10문항의 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20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92, 폐쇄적 의사소통이 .83,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92, 폐쇄적 의사소통이 .81로 나타났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본 각 변인들의 분포는 다음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문항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래압력,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주요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성과 학년에 따른 또래압력,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

성에 따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또래압력과 수치심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치심을 크게 느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녀아 모두에게 공통된 결과였다($r = .27, p < .001; r = .47, p < .001$). 그러나 또래압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은 성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부정적 상관을,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정적 상관을 이루는 것은 남녀아 모두에게 같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정적 상관을 이룬 것은 여아뿐이었다. 즉, 남자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고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여자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고, 아버지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남녀아 모두의 또래압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한편,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는 남아의 수치심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할수록,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수치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또래압력,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3), 또래압력과 수치심의 정적 상관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전체(359)	남아	여아	아동	청소년
	M(SD)	M(SD)	M(SD)	M(SD)	M(SD)
또래압력	2.08(.44)	2.13(.47)	2.02(.40)	2.09(.40)	2.06(.49)
수치심	1.88(.68)	1.93(.65)	1.82(.70)	1.82(.67)	1.98(.68)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2.93(.78)	2.86(.86)	3.00(.69)	3.02(.76)	2.77(.80)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2.49(.64)	2.40(.74)	2.58(.51)	2.48(.60)	2.50(.72)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2.68(.80)	2.68(.81)	2.67(.79)	2.78(.84)	2.50(.68)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2.36(.63)	2.31(.66)	2.43(.59)	2.36(.67)	2.37(.56)

〈표 2〉 남아와 여아의 또래압력,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

	또래압력	수치심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
또래압력						
수치심	.27*** (.47***)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15* (-.20***)	-.08 (-.31***)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	.13 (.28***)	.33*** (.42***)	.34*** (-.49***)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	.01 (-.13)	-.21** (-.29***)	.62*** (.67***)	.01 (-.46***)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	.34*** (.28***)	.20** (.37***)	.09 (-.36***)	.54*** (.55***)	.06 (-.28***)	

* $p < .05$. ** $p < .01$. *** $p < .001$.

남(여)

〈표 3〉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간의 상관관계

	또래압력	수치심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
또래압력						
수치심	.42*** (.30***)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	-.10 (-.30***)	-.22*** (-.09)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	.31*** (-.02)	.42*** (.23**)	-.22*** (.47***)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	-.04 (-.08)	-.27*** (-.16)	.70*** (.48***)	-.20** (-.11)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	.31*** (.29***)	.34*** (.13)	-.12 (.01)	.67*** (.35***)	-.12 (-.02)	

* $p < .05$. ** $p < .01$. *** $p < .001$.

초 5, 6(중 1, 2)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아동(초등학교 5, 6학년)의 또래압력은 아버지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청소년(중학교 1, 2학년)의 또래압력은 아버지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은 수치심이 크고, 아버지·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하며, 청소년은 수치심이 크고,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한 것이다. 어머니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아동, 청소년 모두의 또래압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의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만이 수치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2. 성과 학년에 따른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연구문제 2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VIF 지수는 1.21-1.93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들,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변인들의 상호작용한 값을 투입하였다.

1) 남아와 여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아와 여아의 또래압력에 미치는 주효과의 상대적 영향력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표 4〉와 같다. 남아의 또래압력에 대해서는 수치심($\beta = .30, p < .001$),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beta = -.26, p < .01$),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beta = .27, p < .05$),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beta = .21, p < .01$)의 영향이 유의하였고, 또한 수치심과 아버지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beta = -.31, p < .05$)와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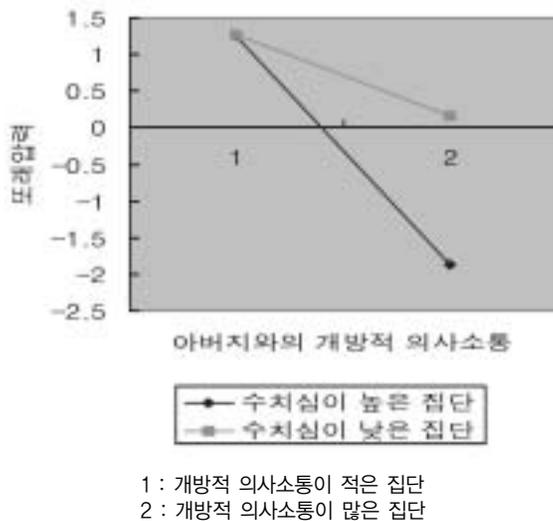
〈표 4〉 남아와 여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아의 또래압력	여아의 또래압력
	β	β
수치심	.30***	.47***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26**	-.02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4	.04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27*	.06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21**	.12
수치심*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31*	-.13
수치심*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3	-.01
수치심*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43**	.13
수치심*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9	-.05
R^2	.30	.26
ΔR^2	.08	.02
F	8.49***	6.2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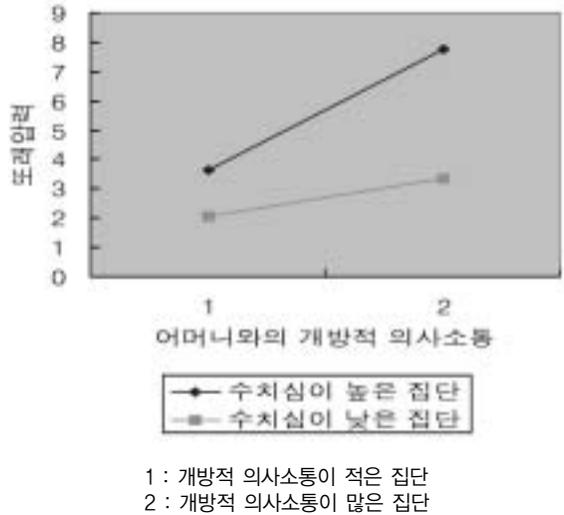
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beta = .43,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0%였다($F = 8.49, p < .001$). 여아의 또래압력에 대해서는 수치심($\beta = .47, p < .001$)의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남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남아가 수치심이 낮은 경우에 비해 수치심이 높은 경우,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을 덜 지각하였다. 즉, 수치심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남아의 또래압력을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남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은 남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남아의 수치심이 낮은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래압력이 크게 좌우되지 않았으나, 남아의 수치심이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더 취약하였다. 즉, 수치심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남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

2)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미치는 주효과의 상대적 영향력과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표 5〉와 같다. 아동의 또래압력에 대해서는 수치심($\beta = .42, p < .001$),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beta = .25,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은 26%였다($F = 8.53, p < .001$).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해서는 수치심($\beta = .43, p < .001$),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beta = -.27, p < .05$),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beta = .21, p < .05$)이 유의하였고,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beta = .32, p < .01$)가 유의하게 나타나 총설명력은 35%였다($F = 7.40,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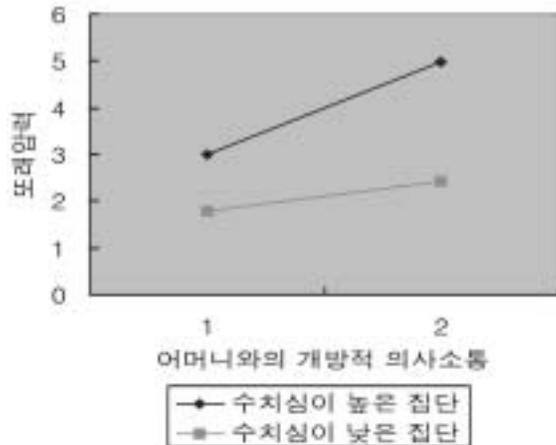
〈그림 3〉은 아동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아동의 수치심이 낮은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래압력이 크게 좌우되지 않았으나,

〈표 5〉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아동의 또래압력	청소년의 또래압력
수치심	.42***	.43***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07	-.27*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8	-.03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13	.08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10	.21*
수치심*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16	-.08
수치심*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8	-.13
수치심*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25**	.32**
수치심*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	.01	.09
R^2	.26	.35
ΔR^2	.03	.09
F	8.53***	7.4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수치심이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더 취약하였다. 즉, 수치심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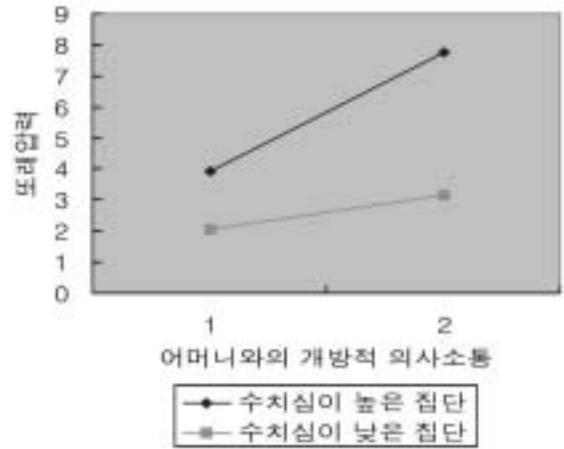


1 :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
2 :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

〈그림 3〉 아동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청소년의 수치심이 낮은 경우,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래압력이 크게 좌우되지 않았으나, 청소년의 수치심이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더 취약하였다. 즉, 수치심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

소년의 또래압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의 패턴이 여아,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1 :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은 집단
2 : 개방적 의사소통이 많은 집단

〈그림 4〉 청소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또래압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관계적 요인을 탐색해보고 부모와 교사들이 아동이 또래압력의 영향에 취약한 이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에 따라 또래압력,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아 모두 또래압력과 수치심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치심을 크게 느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하였고,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또래압력과 부적상관을,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정적상관을 이루었으나, 여아의 경우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과 정적상관을 이루었다. 즉, 남아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고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여아는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적고 폐쇄적 의사소통이 많으며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한 것이다.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유현정, 2004)이거나 긍정적(이연미, 2009)일수록 또래에 동조하는 성향이 낮고 폐쇄적일수록 또래압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높다고 한(유현정, 2004)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남아와 달리 여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취약성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패턴이 특히 여아에게 더 작용함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년에 따른 또래압력,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과 청소년 모두 또래압력이 수치심 및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또래압력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청소년의 또래압력은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은 수치심이 크고, 아버지·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하며, 청소년은 수치심이 크고,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어머니와 폐쇄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취약한 것이다. 먼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폐쇄적인 의사소통의 폐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던 아동기가 지나 청소년기를 맞으면 개방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관계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초기에 부모와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더 필요로 하며, 아동후기는 부모와의 갈등적이고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더 취약한 시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영향은 이와는 조금 달라, 아동과 청소년 모두 폐쇄적 의사소통의 폐해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고 개방적 의사소통을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필요로 하는 요소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변화한 것과는 달리 어머니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은 아동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걸쳐 유사하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성과 학년에 따라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수치심,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치심과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효과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남아의 또래압력에는 자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인 수치심 뿐 아니라 부모와의 의사소통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부모영향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하였다. 특히,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많으면 또래압력에 덜 취약한 반면, 어머니와는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또래압력에 더 취약한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개방적이든 폐쇄적이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아동과 청소년의 서로 다른 발달적 영역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 반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관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결과는 상호작용효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수치심이 작은 경우보다는 큰 경우에 또래압력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를 보았으나,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은 많이 할수록 수치심이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 또래압력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수치심과 아버지와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또래압력에 덜 취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또래압력에 더 취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서 모두 이러한 상반된 방향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또래압력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암시한다. 본 연구가 사용한 또래압력 척도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이 나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와 같은 또래압력의 긍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또래압력의 긍정적인 측면을 학업과 관련해서 발견한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더욱 의미심장하다(Atkinson, 2009; Casella, 1989). 즉, 참석하기 싫은 학교 수업에 참석한다거나 숙제 및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등의 또래압력의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했다면,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가치를 전수받으면서 그러한 또래압력에 동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고 수치심이 큰 남아는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또래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정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 연구가 사용한 척도의 다양한 문항 중 소수의 긍정적 측면의 문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항은 또래압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은 후속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또래압력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반대 방향으로 보이는 두 개의 상호작용효과에서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모두 수치심이 작은 남아보다는 수치심이 큰 남아에게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수치심이 큰 남아일수록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

사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폐쇄적 의사소통이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낸데 비해 아버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아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에 대한 남아의 기대수준을 암시하는 결과로 보이는데, 남아의 또래압력이 폐쇄적인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적 예측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아에게 의미있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이며,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더 할 때 남아는 긍정적인 도움을 받지만, 아버지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부정적 영향도 긍정적 영향도 주지 않는 다소 일상적인 상호작용패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여아의 경우 수치심이 또래압력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고, 그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아의 또래압력은 관계적 요소인 부모와의 의사소통보다는 내면의 심리적인 요소인 수치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것이며, 이는 남아의 또래압력이 수치심 뿐 아니라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여아는 자아에 대한 확신이 없고 스스로를 무기력하다고 여길 때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또래집단이 제공해주는 가치규범에 쉽게 동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치심과 또래압력에 대한 동조행동의 관련성을 밝힌 Rabow와 Duncan-Schill(1995)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수치심이 또래압력과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교사는 남아와 여아의 또래압력으로 인한 문제에 접근할 때 그 해결책의 초점을 달리 두어, 여아의 경우 자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우는데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아의 또래압력에 대한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남아의 그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수치심이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 또래압력이 더 높아졌는데, 다시 말하면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는 또래압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다. 남아와 마찬가지로 여아에게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유지에 의미를 두는 가치관을 전달받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남아와 여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상호작용효과의 패턴은 아동과

청소년집단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아동후기와 청소년 초기자녀의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가 또래 관계에 의존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와 친밀감과 우의가 높아지고 폐쇄적인 의사소통은 또래간 대립관계를 증가시킨다고 한 김연화(2005)의 연구에 비추어 해석해 볼 때 더욱 흥미롭다. 어머니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또래에 느끼게 되는 친밀감은 또래집단의 규범을 준수하여 또래집단에 소속하고 싶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경우, 또래압력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수치심으로 수치심이 클수록 또래압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의 경우에도 수치심은 또래압력에 대해 설명력이 큰 변인이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달리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 모두 수치심이 또래압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며, 수치심과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점 또한 공통적이다. 차이점을 들자면,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주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점이다. 아동기의 또래압력에는 심리적 원인인 수치심이 작용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는 연령임을 고려할 때 의외의 결과이며, 그러나 독립을 원하는 심리상태가 이미 부모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며,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의 영향으로부터 더 취약해짐을 보여준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또래압력에 미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이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부모는 청소년의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발달단계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압력을 지각하는 원인으로는 부정적인 자의식적 정서인 수치심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남아의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수치심

과 상호작용하여 또래압력 지각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와 가정에서 또래압력에 대한 취약성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함양하여 수치심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수치심이 큰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각각 또래압력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압력의 다양한 측면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과의 의사소통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후기에서 청소년 초기에 걸쳐 발달적 변화와 함께 학교급별 변화도 함께 경험하는 시기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의 차이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발달적 차이인지 또는 학교급별, 학년별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인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및 학년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설계 및 해석이 이루어졌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발달적 차이와 학교문화의 차이를 고려하는 좀 더 심도깊은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또래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져, 또래압력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그 패턴만을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어떤 대화 내용을 주제로 삼는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또래압력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수치심이 또래압력을 지각하게 하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수치심 감소와 긍정적 자아인식 함양을 통해 또래압력의 부정적 측면을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권상인(2006). 아동이 지각한 부의 양육참여도, 부-자녀간 의사소통과 또래동조성의 관계분석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연화(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중독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14.
 김연화(2009). 또래괴롭힘 참여유형에 관련된 변인 탐색. 충

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윤희(1990).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유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재은(2007).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와 또래동조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주연(1996). 청소년기의 또래압력에 대한 교회교육의 대응. 침례신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나미, 윤혜미(2006). 또래압력, 부모감독과 음주기대 및 청소년음주행동의 변화추이 -청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891-903.
 박순길, 조중열,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3), 473-486.
 박정은(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 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주연(2006). 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귀순(2001).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연옥(2003). 그림 창의성 검사(TCT-DP)에 의한 아동의 창의성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53-70.
 유현정(2004). 인구학적 변인, 부모관련변인 및 또래동조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두연(2005). 청소년의 또래집단 성향이 휴대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국(2006). 청소년의 또래압력 감소를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 자기주장훈련 중심으로. 한남대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미(2008). 초등학생의 공감 및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집단따돌림 동조유형의 차이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연미(2009).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또래동조성 및 휴대폰 중독.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상철(1998). 청소년기 위험행동. **청소년학연구**, 15(3), 45-62.
 한상철(2001). 청소년기 위험행동의 원인 및 보호적 요소와

- 발달적 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연구*, 39(4), 291-312.
- 한세영(2007). 초기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Atkinson, C.(2009). Promoting high school boys' reading engagement and motivation: The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 in real world research.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0, 237-254.
- Atwater, M. M.(1996). Teacher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mplications for science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Science Teacher Education*, 7, 1-21.
- Bamaca, M. Y., & Umana-Taylor, A. J.(2006). Testing a model of resistance to peer pressure among Mexican-orig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626-640.
- Barkin, S. L., Smith, K. S., & Durant, R. H.(2002). Social skills and attitudes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behaviors among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448-454.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Olson, H.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pp5-23).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 Best, J. A., Thomson, S. J., Santi, S. M., Smith, E. A., & Brown, K. S.(1988). Preventing cigarette smoking among school children.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9, 161-201.
- Casellan, V.(1989). Peer pressure turns into peer cooperation in this computer classroom. *Instructor*, 98, 34-46.
- Curtner-Smith, M. E., & MacKinnon-Lewis, C. E. (1994). Family process effects on adolescent males' susceptibility to antisocial peer pressure. *Family Relations*, 43, 462-468
- Killen, M., Crystal, D. S., & Watanabe, H.(2002). Japanese and American children's evaluations of peer exclusion, tolerance of differences, and prescriptions for conformity. *Child Development*, 73, 1788-1802.
- Lashbrook, J. T.(2000). Fitting in: Exploring the emotional dimension of adolescent peer pressure. *Adolescence*, 35, 747-758.
- Menesini, E., Sanchez, V., Fonzi, A., Ortega, R., Costabile, A., & Lo Feudo, G.(2003). Moral emotions and bullying: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differences between bullies, victims and outsiders. *Aggressive Behavior*, 29, 515-530.
- Rabow, J., & Duncan-Schill, M.(1995).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40, 52-64.
- Rossiter, A. B.(1994). Chips, coke, and rock-n-roll: Children's mediation of an invitation to a first dance party. *Feminist Review*, 46, 1-20.
- Santor, D. A., Messervey, D., Kusumakar, V.(2000). Measuring peer pressure, popularity, and conformity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Predicting school performance, sexual attitude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163-182.
- Scheff, T. J.(1990). *Microsociology: Discourse, emotion, and social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m, T. N.(2000). Adolescent psychosocial competence: The importance and role of regard for par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49-64.
- Sternberg, L.(1987). Single parents, stepparents, and the susceptibility of adolescents to antisocial peer pressure. *Child Development*, 58, 269-275.
- Tangney, J. P., & Dearing, R. L.(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NY: Guilford Press.

접 수 일 : 2009년 8월 6일

심사시작일 : 2009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9월 14일